

“클래식·트롯·재즈 들으며 한 해 마무리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을 클래식, 트롯, 재즈를 감상하며 차분히 마무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이하 ACC)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극장 1에서 '2023 ACC 송년음악회'를 연다. 가수 심수봉, 피아니스트 윤석철의 콜라보 무대를 필두로 TMO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해 겨울과 어울리는 재즈 버전의 영화음악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먼저 1부는 대중에게 사랑받은 씨네 뮤직으로 채워진다. TMO오케스트라(지휘 송민규)가 영화 더 미션의 OST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선보인 뒤, 영화 시네마천국의 대표작 '시네마 천국'과 러브레터의 '겨울 이야기'를 이한결 트럼페티스트와의 협연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이한결은 발달장애를 앓았으나 이를 음악으로 치유하고 극복해 온 희망의 뮤지션이다.

클래식 무대에서 사랑받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음악도 레퍼토리에 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 '어느 여름날'을 비롯해 이웃집 토토로 중 '바람이 지나가는 길', '토토로' 등이 그것.

'TMO오케스트라'는 국내 최대 규모 유튜브 클래식채널 '또모'에서 창단한 50인조 오케스트라다. 정통 클래식부터 영화음악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곡을 연주하며 그동안 부산문화예회관, 대구콘

서트하우스 등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심수봉과 윤석철이 콜라보 무대로 꾸미는 2부도 이목을 끈다. 7~80년대 심수봉의 히트곡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백만 송이 장미' 등을 부른다.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 '그때 그 사람'으로 데뷔한 심수봉은 러시아 가요를 변안한 '백만 송이 장미' 등 수많은 인기곡을 낳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대부분의 곡을 직접 작사·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줬으며, 그의 곡을 모티브로 수많은 후배가수들이 리메이크곡을 재창작해 왔다.

팝, 재즈, 힙합, 일렉트로닉 장르에서 활동하는 재즈피아니스트·프로듀서 윤석철도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이외 미국 작곡가 거슈윈이 작곡한 최초의 심포닉재즈 '랩소디 인 블루' 등은 임현진 피아니스트와의 협연을 통해 재즈 버전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한편 'ACC 송년음악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올해 9회째를 맞았다. 트롯,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지역민과 연말연시를 함께 보낸다는 취지에서 마련되고 있다.

공연사업팀 정승재 학예연구관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공연들이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이번 공연은 대중에게 친숙한 트롯, 영화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려 예술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관객들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일부터 ACC 누리집 등에서 예매 가능. R석 3만원, S석 2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네마 앤 클래식' 공연에서 인터스텔라 OST를 연주하는 TMO 오케스트라.

<유튜브 또모 갈무리>

자유로운 '선' 우아함이 흐르다

컬리너리 'Shape:형상' 전, 30일까지 전남대 치과병원 갤러리

선은 자유로우면서도 독특하다. 형상을 이루면서도 그 형상을 넘어서려는 에너지를 받는다. 선은 어느 공간에서든 설 새 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조형을 이룬다.

여성 작가 컬리너리의 작품이 주는 이미지는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다. 얼핏 서로 대조적인 느낌을 받지만 작품에서는 조화와 안정감을 준다.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작가 컬리너리의 'Shape:형상' 전.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환자를 비롯해 보호자, 그리고 시간을 위한 특별한 자리다.

작가의 29번째인 이번 전시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지는 취지로 마련됐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예술가 컬리너리는 'Shape:형상'이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속 형상의 이미지는 반추상 또는 추상에 가깝다. 보는 이에게 어떤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닌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선들은 형상의 해체와 구성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선을 상상하게 한다.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가 선들의 윤곽을 통해 시각적으로 해석되지만, 그것이 꼭 사람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확장적인 선으로 다가온다는 데 묘미가 있다.

대표작인 'DYNAMIC'에서는 인체와 색을 통해 쾌락을 묘사하고 있으며, 붉은 색은 '동적인 힘'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컬리너리 작품은 드라마와 영화 배경 그림으로도 전시됐다. tVN '남자친구'를 비롯해 SBS '사내맞선', KBS2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에서 사용돼 관객들에게 친근감을 준다.

한광용 전시 담당자는 "컬리너리의 작품은 선을 매개로 이색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작가는 인간적인 것과 비구상적인 것



'Shape'

사이의 분위기를 자신만의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형상이 지니는 다채로운 묘미와 의미 등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5·18청소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공연 장면.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제공>

평화를 연주합니다, 5·18을 추모합니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9일 5·18기념문화센터

초등학교생~중학생들이 현악기 연주로 5·18을 추모하고 헌정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문승훈·청소년오케스트라)가 '제3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9일 오후 5시 5·18기념문화센터(민주홀)에서 진행한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아침이슬'이 막을 연다. '오제의 죽음'은 노르웨이의 피아니스트 그리그가 '오제'의 죽음을 묘사한 처연한 작품으로, 5·18에 대한 오마주곡으로 올려 퍼질 예정이다.

이어 쇼스타코비치의 랩소디가 깃든 '왈츠 2번',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 '에델바이스'와 '도레미 솔'을 들을 수 있다.

소프라노 노연선은 헨델의 '올게 하소서'와 카이러 곡 '라 스파노라'를 부른다. 노 소프라노는 전남대 예대 음악학과(성악),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등을 졸업했으며 전남대 음악교육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꽃의 동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이현 해금합주단이 연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빈슨의 '디즈니 영화음악 모음곡'과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발'도 올려 퍼진다.

지휘는 전남대 음악학과와 독일 아헨 국립음대를 졸업한 오인표가 맡는다. 이수인(예술중1), 김어진(중양초5), 정해원(효동초4), 반아빈(동아여중1) 등 50여 명 학생 연주자들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연주한다.

청소년오케스트라 문승훈 단장은 "민국 공용어인 '음악'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평화를 울려 퍼뜨리는 전달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창단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의 정신을 음악으로 계승하는 후속세대를 육성하고, 5월의 상처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단체다.

초청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뮤지컬 '프리즌'

<극단코스모스 제공>

감옥서 살아 남으려면 '방장'을 즐겁게 하라

코믹뮤지컬 '프리즌' 광주 무대... 20~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학로를 중흥로진하던 코믹뮤지컬 화제작이 광주에 상륙한다.

극단코스모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뮤지컬 '프리즌'을 오는 20~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여성, 가족, 창작코믹 분야에서 예매율 및 만족도 1위를 기록해 왔다. 평일(20~22)은 오후 7시 30분, 주말(23~24) 오후 2시, 6시에 진행 예정.

공연은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건스 앤 로지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쿨투의 정찬우가 제작했다. 가수가 되기 위해 록밴드를 꾸려 연습생 생활을 하던 일당이 사기를 당해, 돈을 마련하려 은행을 털다 체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관전 포인트는 교도소 안에서 펼쳐지는 수감생활기에 있다. 경찰에 붙잡힌 것도 서랍지만 설상가상으로 총, 노래 등 저마더의 끼를 발산해 감옥의 '방장'을 즐겁게 해야만 살아남는다. 매일 춤과

노래 트레이닝을 '당하'면서, 해외 도피 계획까지 세웠지만 쉽지 않다.

결국 탈옥에 성공해 돈을 숨겨뒀던 은행에 찾아가지만, 그 자리에는 클럽이 생긴다. 클럽 밴드로 취직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다양한 콘셉트로 변장해 밴드 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음반 출시 제안이 들어오고 그 음반은 '대박' 행진을 치게 되는데...

공연은 지난 2010년 3월 첫선을 보였으며 10년 넘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공연 중 관객이 무대에 올라 노래하거나 손뼉을 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예술 역은 전 율라라세션 멤버 하준석과 더불어 최승환, 손동진이 맡는다. 토미 역에 김동훈 등, 브라이언 역은 김세훈 등이 출연한다.

네이버, 인터파크 예매. 좌석별 3만 원~5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강민지 제28회 신인발레리나상 한국발레협회



우리나라발레의 미래를 열어갈 차세대 발레인에게 수여하는 한국발레협회 제28회 신인 발레리나상 수상자로 광주시립발레단 강민지(사진) 수석무용수가 선정됐다.

성신여대를 졸업한 강민지 발레리나는 2018년 광주시립발레단에 입단, 이듬해 차석으로 승격된 뒤 2021년 수석 단원이 됐다.

그동안 광주시립발레단의 정기공연 '돈키호테', 'DIVINE', '지젤' 등에서 주역을 맡아 왔다.

2016년에는 제14회 (사)한국발레콩쿨 대학 일반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 제18회 한음무용콩쿠르에서 전체 우수상을 받았다.

같은 해 제6회 한국프로발레협회콩쿨 대학, 일반부에서 금상을, 한국문예총장관상, 국제콩쿠르 대학 일반부 은상 등을 수상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출신 작가, 미술계 '파워 100' 선정

아서 자파·다야니타 싱·에드가 칼렐·나임 모하이멘·캔디스 린 등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였던 아서 자파를 비롯해 다야니타 싱, 에드가 칼렐, 나임 모하이멘, 캔디스 린 등이 미술계 인사를 대표하는 '파워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박양우)는 아트리뷰가 매년 12월 1일 공개하는 '파워100'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를 비롯해 역대 기획자, 참여 작가가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위에 올랐던 아서 자파는 이번에는 32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아가는 현실을 사후해 온 아서 자파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애도와 비판의 감정을 한기시키는 'LOML' (2022) 영상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를 거쳐 갔던 역대 참여작가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

이번에 2위를 기록한 히토 슈타일일은 2016년 제11회 광주비엔날레에, 3위를 차지한 리크리트 타라비니자는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다.

2021년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였던 세실리아 비쿠냐는 2020년 17위로 진입한 이후 올해 55위를,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눈예술품을 수상했던 양해규 작가는 2017년부터 순위가 올라 올해에는 71위를 차지했다. 2016년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오토보 영강가는 2022년 81위에서 올해 76위에 올랐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파워100' 발표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와 기획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작가와 기획자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